

오한협 COVID-119 기도문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 주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주님!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2. 주여!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 주여! 모든 성도들과 열방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 주시고,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4. 주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길,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이 땅의 고통을 덮어버리게 하소서!
5. 주여!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새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기적이 속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6. 주여! 사람들을 미혹해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7. 주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만연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악한 세력들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믿음과 증오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8. 주여! 사명감으로 온 힘을 다하는 의료인들과 수고하는 방역 관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9. 주여! 감염자와 의심증상자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병든 자,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품는 일에 한인교회가 힘쓰게 하옵소서!
10. 주여! 뉴질랜드 지도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생각 없이 예배를 막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임을 깨달아 육적인 면만 아닌 영적인 면도 보아서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당분간 선교란에 있는 연합 기도 제목으로 대신합니다)

나눔란

2020년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세 사람의 인생> 창세기 4:16~26

오늘의 말씀은 세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1) 가인의 삶은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었습니다(16). 예배에 실패하며 살인자가 된 가인은 농사뿐 아니라 인생 자체가 결실이 없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면서 서도(4:13)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이란 뜻의 에덴을 떠나 ‘방황’이라는 뜻의 노방으로 가서(16) 제일 먼저 성을 쌓았습니다(17).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존재적 불안으로 인해 스스로 성을 쌓지만 그 성은 예측 못한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죄에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요 15:5). 돌아와 회개하면 인생의 방향은 끝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신비이며 본질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호 6:1)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2) 라멕의 삶은 부도덕한 삶의 표상입니다(19).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겉모양에 치중하고 악기를 다루는 두 아내를 얻어(19)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자 아들들을 두었습니다(20-22).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렇게 잘 사는데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생기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 해할망정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잠 24:19) 하셨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하며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시 37:2). 라멕은 그 시대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살인을 합리화시키는(23) 죄의식 없는 살인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인과 배신이 범람하는 라멕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소망인 에노스를 주십니다.

3) 에노스의 삶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26)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을 때 ‘내’가 주어였던 가인을 낳았을 때와 달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감사를 드리는(25) 성숙함을 보였고 셋을 통해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에노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26). 에노스는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에노스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습니다(창 5:28-29). 하나님은 이 라멕의 아들인 노아를 낳은 자요 그루터기로 삼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오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 역사의 정점에 있는 에노스에 의해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능력을 구하기 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에노스’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도망자의 삶, 라멕은 죄의식 없는 살인자의 삶,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후손 ‘에노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갈보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마가복음 1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